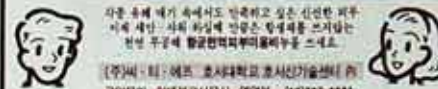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신도들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는 피부!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피부를 자극하고 있는 신세대 피부
이제 피부는 피부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연구된
자연 무공해 천연성분으로 피부가
(주)에프에스 코스메틱 코스메틱(주)에서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777-8881

명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①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발행 2541년(서기 1997년) 3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스님들에게 철저하게 강조되는 '무소유' 정신이 사회와 경제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스님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유를 인정해 이 한다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스님들의 무소유는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에 대한 공론이 필요한 듯하다. 다만 부처님은 재가자들에게는 정당한 노력으로 축재(蓄財)를 이루라고 했다. 대신 그 부(富)를 널리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회의 공유로 환원하라는 뜻이다. 차저에 무소유 정신의 교훈을 경전과 어록에서 다시 새겨본다. (편집자 주)

어떠한 소유도 없고 집착이 없어야 할 일 없는 것이 바로 피난처이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노쇠와 죽음의 소멸이다. (순타니피터)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소유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순타니피터)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끝은 없다. 욕망은 고통의 원인이다. (법구경)

나는 왕자의 지위를 문물에 비치는 먼지처럼 보고, 금이나 옥 따위의 보배를 가진 기아장처럼 보며, 비단옷을 한 누더기 같이 보고, 삼천대천 세계를 한 알의 겨자쌀같이 본다. 열반을 아함 저녘으로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보고, 경등을 밝히는 등지로 보며, 교화를 퍼는 일을 사할 푸른 나무와 같이 본다. (사십이장경)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 내 생애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표주박 하나 베풀어 걸러져야 하라. (합월스님 '표주박하느라')

발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마치 개미집이 부풀어오르듯이. (장부경전)

내와 남이 들어온 것이 한물이다. 민손으로 왔다가 민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망이 아닌가. (홍정 '산기묘')

'복제 양 성공' 불교계 시각 15면
불교문화 테마여행 - 통도사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보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3월 1·2일 연휴로 일부지역 신문배달이 늦어집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찰 장례식장운영 '파란불'

복지부 종교시설 등에 용자지원 대폭 확대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상례절차를 사찰에서 수행할 날이 멀지 않았다. 협오시설로 인식돼 온 장례식장 설치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용자대상 및 용자액 등을 대폭 확대발표해 불교계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3일 법안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자에게 연리 7.7%, 5년 거주 7년 상환 조건

으로 건축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용자지침을 발표했다. 건축비의 70%는 전문 장례식장 1개소당 8억원 이내, 병원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은 1개소당 4억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장례식장은 전국적으로 3백 26곳이 있다. 그러나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막론하고 종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신규 법제는 '현대 운영되고 있는 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백양사 재정공개 요구본사론 처음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지선)가 사찰재정 현황을 공개(화두와 실천) 겨울호에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백양사는 지난해 8월까지 토지 임대 불전금 관리료 시주금 등으로 5억1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포교활동비와 관람료분담금 장학금 등으로 4억8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이 자료는 42개 말사 및 선원·강원대중 현황(65명)과 함께 95, 96년도의 재정현황을 도표로 실어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



◇ '자비의 탁발'이 지난 2월 26일 서울을 비롯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사진은 조계사 앞 탁발 모습.

'자비탁발' 3천여불자 동참

성금전액 北 동포-불우이웃에 전달

조계종총무원(원장 일주)은 지난 2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탁발의날' 선행식을 갖고 이어 서울 탑골공원과 명동 상업은행 앞, 압구정동 갤러리 아벽화점 앞과 전주 정읍 영천 강릉 등에서 '이웃과 민족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날 조계사를 출발, 종각-종묘공원-탑골공원에 이르는 거리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일주 스님, 총회위원장 설성스님 등 3백여명의 스님과 3천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거리행진 이후 3시부터 5시까지 탑골공원 앞에서 모금 활동을 펼쳤다. (관련기사 3면)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한 민족 공동체를 발원하자'고 호소했다.

농지법 회기내 처리 어렵다

국회 심의조차 불투명... 전사법 통과 될 듯

지난해 12월 국회정각외 의원들의 발의로 마련된 불교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농지법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지난 2월 26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과 국회정각외의원 간담회에서 박헌기위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할 내부위원회가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해 이날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한 다 해도 18일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불교 세계에 알린다"

조계종 웹사이트 3월중 개설

조계종 총무원(원장 일주)은 3월중 인터넷상에 웹사이트 '대한불교조계종' (Korean Buddhism Chogye Order)을 개설한다. 종단 차원에서는 최초로 한국불교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 이 사이트에는 △한국불교사 △조계종 △전통사찰 △한국의 불교예술품 △연등회 △한국의 불교서비스 등이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공된다. 특히 '전통사찰'에서는 5백여종의 팔라사 지도도 제공한다. 영문자료는 지난해 총무원 문화부에서 펴

출행사를 위해 발간한 <한국 불교>(영문판)를 기본자료로 사용했다. 조계종은 이 웹사이트 개설을 위해 지난 2월27일 '일부진 시사회'를 개최했다. 시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조계종 웹사이트는 전통성과 서정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이외에도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논문과 한국불교의 이미지에 맞는 그래픽 등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종욱 기자)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회전문위원의 심의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자연공원법 소관상임위원 내부위는 이번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해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다음 회기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공보부에서 심의를 이미 마쳐 이번 회기내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총무원과 정각외는 불교관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3월 국회 정각외위원회 특별발법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불교관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정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3월 테마여행 - 내소사

한국의 색·線·面(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

내소사는 변산반도 남단에 자리잡은 고찰로 연꽃 국화 등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꽃무늬문살로 유명한 대웅보살(보물 제29호)과 고려시대 불종(보물 제27호) 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를 서로 교합하여 건축한 대웅전은 조선전기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천정의 꽃무늬와 퇴벽의 벽의 관음보살도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일주문에서 천왕문으로 이어지는 쪽쪽 뿔은 천나무같은 보기만 해도 기승이 시현해지는 나무타널로 숙진을 잊어줍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채석강도 들릴 예정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3월 호남명림로의 테마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동참 안내

- 출발: 3월 29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 안내: 김장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
- 회비: 3만 원(사찰에서 점심공양)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한주여행사 (02)738-8100
- 은행계좌: 조흥은행 22-04-21460(신정호)
- 입금후 한주여행사로 연락바랍니다.

4월 27일 서울암 남산-한국의 얼굴
5월 25일 대흥사-藥 草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영축산 통도사에 있는 전각들과 탑 석등, 이것들과 어우러져 있는 자연, 그 속에서 불법을 꽃피운 위대한 고승들. 어느하나 불어(佛敎) 때 놓을 수 없다.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 가르침을 직접 살신 인도 영축산과 통도사는 통도사, 부처님 진신사리가 대웅전 뒤쪽 금강계단에서 살아 숨쉬고있어 구태여 부처님 형상을 모실 필요가 없다는 불보(佛寶)사찰이다. 통도사 테마여행은 불교문화답사에 그치지 않는다. 1천3백여년 시공을 넘어서서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픔을 오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불교문화테마여행 장편).